

# 무주군, 국가 예산 확보 총력

### 황인홍 군수, 정세균 총리·허태웅 농촌진흥청장 만나 지원 요청

국비 확보를 위한 무주군 행보에 연일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황인홍 군수는 6일 정세균 총리를 만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황 군수는 "국제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원대학 개념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은 태권도의 위상을 키우는 발판이자 국익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기회라는 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며 "내년 예산에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비(3억원)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호소했다.

또 무주읍 시내 권의 양방통행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 주차장 설치를 위한 예산(169억여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마음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황인홍 군수는 "무주읍은 중심권 도로가 협소하고 양방통행이어서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미 심각한 상태인 주차난이 대규모 공동주택 등의 신축으로 가중돼 주차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농촌진흥청을 찾은 황인홍 군수는 허태웅 청장에게 무주군의 먹거리 종합계획을 밝히며 안전역거리 생산과 가공식품 개발 등의 신규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지난 5일 농촌진흥청을 찾은 황인홍 군수는 허태웅 청장에게 무주군의 먹거리 종합계획을 밝히며 안전역거리 생산과 가공식품 개발 등의 신규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먹거리 생산과 가공식품 개발 등의 신규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출하 검증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황 군수는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2억5,000여만 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 가공창업 활성화와 신소득증대원 개발·육성을 위한 융·복합 품목(사과, 천마, 블루베리, 오미자, 호두, 머루), 특산물(관광 상품형 건강 빵·과자류, 혼합음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새로운 소비시장이 확보돼 반딧불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예산(2억여 원) 확보

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황인홍 군수는 "국가예산 확보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며 "중앙부처는 물론 도, 정치권 등과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부족한 예산을 메우고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도모하는데 가진 역량을 결집하고 실행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국가예산안 편성 순기에 맞춰 현안사업 관련 부처를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귀농·귀촌 지원정책 상담 서울서 열린다

### 8~9일 서울 방배동 전북 귀농귀촌지원센터서

무주군은 오는 8일과 9일 서울 방배동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무주군 귀농·귀촌 지원정책 상담 및 홍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구유입을 위한 예비 귀농·귀촌인 심층 상담을 위해 마련되는 이 자리에는 무주군 귀농귀촌팀 담당 공무원과 귀농귀촌협의회 관계자 등 6명이 참여해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비롯한 유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귀농·귀촌 상담이 진행되며 오후 1시 30분부터는 "귀농,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사과·블루베리 농장)", 오후 3시부터는 "고향에서 펼치는 인생 2막(꽃감·호두농장)"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9일에는 오전 10시 30분 귀농·귀촌 상담을 시작으로 귀농·귀촌 지원정책, 귀농·귀촌 사례 공유, 질의응답 및 수료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무주군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 강혜경 팀장은 "보다 공격적으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도시민을 직접 찾아 나서게 됐다"며 "실제 무주 지역으로 귀농·귀촌해 살고 있는 주민들이 동행하는 만큼 생생한 교육과 상담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용자 지원을 비롯해 ▲집들이 비용, ▲농가주택 수리비, ▲건축설계비, ▲청장년 귀농인 영농을 도우며 ▲고령 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 ▲귀농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예비 귀농인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귀농인의 집을 운영(안성면, 무풍면, 적상면 6곳) 하고 있으며, ▲도시민들이 한시적으로 체류하면서 농촌생활 체험(영농교육 & 실습)을 할 수 있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도 운영(안성면 소재, 생활동 10동, 공동경작지 1, 시설 하우스 2동) 중이다.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는 귀농·귀촌 또는 전원생활 체험 희망자가 현지 탐색을 위해 단기간(2박 3일)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 귀농·귀촌에 관한 정보 취득 및 방향 설정을 돕고 있다.

이외에도 무주군 귀농귀촌협의회가 주축이 돼 ▲창업 및 마을융화 교육, ▲멘토컨설팅, ▲풍아리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백신 접종 현장 대응 능력 높여

### 진안군, 만 75세 이상 접종 앞두고 위기 상황 대비 모의 훈련 실시

진안군은 관내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앞두고 6일 모의 훈련을 실시했다.

군에 오는 15일부터 전통문화전수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를 열고, 관내 만 75세(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 입소자·종사자에 대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이번 모의 훈련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위기 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준비했다.

예방접종센터에서 열린 모의훈련은 예방접종센터에서 열린 모의훈련은 예방접종, 진안경찰서, 무진장소방서, 제7733 부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백신 준비 시연, ▲접종 모의훈련, ▲이상 반응 관찰 대응훈련으로 이뤄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가상해 진행됐다.

또한 이상 반응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긴급 대처 훈련을 진행해 실제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의훈련에서 나온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하여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3월 1분기 접종대상자인 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 진안군의료원 의료인 및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 481명에 대한 접종을 마쳤고, 이달 8일에는 특수교육종사자 및 유·초·중등 보건교사 46명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발대식

진안군은 6일 산악초터에서 용담호 상수원을 지키기 위해 최 일선에서 일하게 될 지킴이 42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용담호 광역상수원 지킴이 발대식'을 갖고 지킴이들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발대식에서는 결의문 낭독 및 환경의식 교육 및 수질자율관리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으며 용담호를 지키기 위한 민간단체인 용담호 수질개선 주민협의회에서도 참석하여 지킴이 발대식을 축하했다.

용담호 광역 상수원 지킴이들은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쓰레기 투기·불법 낚시·어로행위, 가축분뇨 무단배출 등 유입하천의 수질관리를 위한 감

시 및 계도, 하천정화, 방치쓰레기 수거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전춘성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용담호는 진안군 수몰이라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올해는 용담호가 조성된 지 20년이 되는 기념적인 해"라며 "냅 조성 이후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대신 수질 자율관리를 통해 2년 마다 받는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수전에 비해 호소 및 유입하천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매우 좋은 1급수를 자랑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지킴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군민 친화적 평생교육원 리모델링 공사 착수

무주군이 군민행복을 실현하고 군민들에게 균등한 학습기회가 제공될 평생교육원 리모델링 공사가 7일부터 착수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평생교육원은 사업비 3억1,000만원(군비)을 들여 무주읍 한공루로 326-36에 연면적 1031㎡,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다.

오는 6월 중 마무리될 평생교육원은 기존 사용했던 무주국제화교육센터 청사를 내부 리모델링, 군민 친화적 평생교육원을 설립해 지역 인적 지원을 개발하는 산실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군민들의 숙원인 평생교육원은 모든 군민을 위한 평생학습 전용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무주군평생교육원은 무주군이 직접 운영한다.

이로써 그동안 평생학습 전용공간 부족으로 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완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주군평생교육원은 기초문해를 비롯한 인문교양, 시민참여교육, 직업능력교육 등 전 세대가 참여 가능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에 평생교육 컨트론타워로서의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평생학습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군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강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대상은 전 연령대의 모든 군민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한우 우량 유전형질 개발 위한 업무협약

장수군은 장수한우지방공사, 이티바이오텍(주), 충북대학교와 6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장수한우 우량 유전형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협약기관 간 상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우량 한우 선발을 위한 유전분석, 수정란 등 유전자원생산, 우량개체 검증 등을 통한 장수한우의 선진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군은 유전체 분석정보에 기반한 종축 차별화로 장수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장수한우의 우량유전형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수정란 지원사업과 병행해 우량 수정란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공고히함으로써 우량한우 생산을 통한 소득창출에 만전을 기한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군, 지역주민 지방보조금 맞춤형 교육 진행

무주군은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지역주민과 마을리더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지역주민 역량강화교육은 최근 정부정책 변화로 민간 주도의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또한 보조금 제도를 인식하여 지역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군은 지난 2일 지역리더를 비롯해 보조사업 대상마을, 체험휴양마을 사무장무주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지역주민 지방보조금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진행은 농촌관광업에서 보조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혜진 주무관으로부터 보조사업 선정부터 집행, 정산,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과 평소 업무처리를 하면서 느낀 애로사항과 감사지적 사례 등 실무 위주의 현실감 있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